

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김진우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Aged 65 and Older Living in a Local City

Jin-Woo Kim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재택 노인 258명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를 이용한 면접조사에 의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의 우울 수준은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였다. 조사 대상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4.25, p<0.01$),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56.17, p<0.01$). 주관적 행복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3.23, p<0.01$), 이 때 주관적 행복감의 β 값이 -0.418 로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았을 때의 β 값인 -0.623 보다 작아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에서 사회적지지는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였다($Z=-5.28, p<0.01$). 위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living in a local city.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258 elderl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during the period May 1 to June 30, 2023.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in the surveyed elderly revealed that the lower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lower the social support, and the higher the depressi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while controlling subjective well-be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is time, the β value of subjective well-being was -0.418 , which was smaller than the β value of -0.623 , which was not passed through the parameter, indicating that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sults of the Sobel test, social support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may have a mediating effect on enhancing subjective well-being related to depression in the elderly.

Keywords : Elderly,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Depression,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Jin-Woo Kim(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kcp@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9, 2023

Accepted October 6, 2023

Revised October 5, 2023

Published October 31, 2023

1. 서론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전례 없는 고령사회를 맞이해 가고 있다. 평균 수명은 2010년에 80.2세(남성 76.8세, 여성 83.6세)였던 것이 2021년에는 83.6세(남성 80.6세, 여성 86.6세)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7년에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025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1]. 이 같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들은 단순히 연명해 가는 삶이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활동적으로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노인은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건강한 상태로 노후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의 건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노인의 정신적인 건강 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울이다. 노인층에서의 우울은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생활만족감을 떨어뜨리고[2,3], 노인 자살의 전 단계로서 우울 상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 또한 우울에 의한 건강 상태 악화는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5-7]. 이 같은 노인의 우울 상태에는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생활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8], 고령기의 생존 예후를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주관적 행복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생명 예후가 좋다고 보고되고 있다[9-11].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내면적인 충실감 및 삶의 보람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12],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우울 상태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13]. 한편, 사회적 지지란 생활 주변의 여러 인적 자원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및 물질적인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특히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9].

그동안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 상태와의 관련성

에 대한 많은 연구[20-24]가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지만,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 상태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자에 해당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 상태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받지 않은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표본 수의 추정은 G*power 3.1.7 프로그램[25]을 이용하여 예측변인 13개, 효과크기 0.10,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양측검정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44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행정구역 5개 동(洞)별로 60명씩 합계 300명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응답자 42명을 제외한 258명(회수율 86.0%)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 수집 및 윤리적 배려

자료 수집은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본 연구의 설문 내용 및 조사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6명의 조사원이 조사대상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면접조사는 조사 대상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 연구 대상 노인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2.3 연구에 사용한 변수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사용한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거주상태, 주관적인 건강 상태, 흡연상태, 음주상태, 규칙적인 식사 여부 및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령은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다」와 「없다」로, 거주상태는 「혼자 살고 있다」와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살고 있다」로,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와 「건강하지 않다」로 구분하였다. 흡연상태는 「흡연」과 「비흡연」으로, 음주상태는 「음주」와 「비음주」로, 규칙적인 식사 여부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와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였다.

2.3.2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사용한 주관적 행복감의 측정에는 Lawton[26]이 개발한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PGC) morale scale을 변안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23]. PGC morale scale은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는 각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문항에는 「그렇다」 1점, 「그렇지 않다」 0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0점을 부여하여 총득점 합계(0~17점)를 주관적 행복감 점수(morale score)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749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사용한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는 Sherbourne과 Stewart[27]가 개발한 MOS-SSS(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를 변안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28]. MOS-SSS는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지지(4문항), 정보적 지지(4문항), 물질적 지지(4문항), 애정적 지지(3문항) 및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는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이용하여 「전혀 없다」 1점, 「대부분 없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부분 있다」 4점, 「항상 있다」 5점을 주어 총득점 합계(19~95점)를 산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62이었다.

2.3.4 우울(Depression)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한 우울의 측정에는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29,30]에서 역학 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변안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였다[31]. CES-D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는 각 문항마다 3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의 점수를 주었고, 긍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그렇지 않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1점, 「항상 그렇다」 0점의 점수를 주어 총 득점 합계(범위: 0~60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16점 이상의 경우를 우울 상태로 판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795이었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26.0) 프로그램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32]가 제시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우울(CES-D) 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수(주관적 행복감)와 매개변수(사회적 지지)와의 회귀분석, 2단계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우울)와의 회귀분석, 그리고 3단계로 독립변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5.0%, 여자 55.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5~74세 군 51.2%, 75세 이상 군 48.8%이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다는 군 75.2%, 없다는 군 24.8%이었으며, 거주상태별로는 혼자 산다는 군 16.3%, 가족과 함께 산다는 군 83.7%이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 별로는 건강하다는 군 69.0%, 건강하지 않다는 군 31.0%이었고, 흡연상태별로는 흡연군 39.1%, 비흡연군 60.9%이었다. 음주상태별로는 음주군 46.9%, 비음주군 53.1%이었고, 규칙적인 식사 여부 별로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 74.0%,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군 26.0%이었다.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별로는 일상생활에 만족한다는 군 67.1%, 만족하지 않는 군 32.9%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258)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116(45.0)
	Female	142(55.0)
Age(year)	65~74	132(51.2)
	75≤	126(48.8)
Spouse	Alive	194(75.2)
	Died & separated	64(24.8)
Living status	Live alone	42(16.3)
	With spouse/child	216(83.7)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78(69.0)
	Unhealthy	80(31.0)
Cigarette smoking	Yes	101(39.1)
	No	157(60.9)
Alcohol drinking	Yes	121(46.9)
	No	137(53.1)
Eating habits	Regularly	191(74.0)
	Irregularly	67(26.0)
Satisfaction of daily life	Satisfaction	173(67.1)
	Dissatisfaction	85(32.9)

3.2 사회적지지, 주관적 행복감 및 우울 정도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95점 만점에 68.53±12.47점이었으며,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17점 만점에 12.63±3.62이었고, 우울의 평균은 60점 만점에 15.98±11.33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of study subjects (n=258)

Variable	M±SD	Range	Kurtosis	Skewness
Social support	68.53 ± 12.47	19~95	0.451	0.587
Subjective well-being	12.63 ± 3.62	0~17	-0.369	0.326
Depression	15.98 ± 11.33	0~60	0.247	0.292

3.3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402$, $p<0.01$)를 보였으며, 주관적 행복감과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516$, $p<0.01$)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 지지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483$, $p<0.01$)를 보여 사회 적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n=258)

Variable	Depression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Depression	1.00		
Social support	-0.402**	1.00	
Subjective well-being	-0.516**	0.483**	1.00

** : $p<0.01$

3.4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실행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5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742~3.597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이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인 β 값이 0.7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4.25$, $p<0.01$),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이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인 β 값이 -0.6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17$, $p<0.01$),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의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치는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n=258)

Step	Predictors	β	t	Adj. R ²	F	Sobel test(Z)
1	PGC-MS → MOS-SSS	0.705	8.62**	0.34	64.25**	-5.28**
2	PGC-MS → CES-D	-0.623	7.39**	0.42	56.17**	
3	PGC-MS → CES-D	-0.418	5.18**			
	MOS-SSS → CES-D	-0.527	6.24**	0.56	43.32**	

PGC-MS: Subjective Well-being by PGC-Morale Scale, MOS-SSS: 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 : p<0.01

영향은 표준회귀계수인 β 값이 -0.5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3.32, p<0.01), 설명력은 56%로 나타났다. 이때 독립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의 표준회귀계수인 β 값이 -0.418로 2단계의 β 값 -0.623보다 작아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5.28, p<0.01)(Table 4,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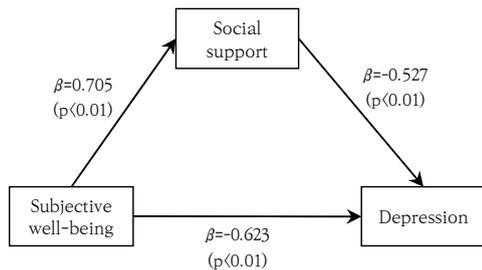


Fig. 1. Mediating effect model

4. 고찰

본 연구는 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 수준에 주관적 행복감과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선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로서 주관적 행복감의 측정에는 PGC morale scale[26]을,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는 MOS-SSS[27]를, 우울의 측정에는 CES-D[29,30]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들은 국제적으로 그 신뢰도와 타당도

가 입증된 도구들이며, 본 연구에서의 이들 측정 도구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모두 0.7 이상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의 우울(CES-D) 수준의 평균점수는 15.98±11.33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측정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Lee 등[31]은 도시지역 노인 18.81±10.31점, 농촌지역 노인 14.49±11.20점으로 보고하였고, Baek 등[33]은 도시지역 노인에서 18.95±10.29점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노인들의 우울 수준과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 수준은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조사 대상 노인들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 지지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시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19,33,34] 및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우울 수준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 수준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며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부분매개효과는 주관적 행복감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매개하여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즉, 우울은 주관적 행복감 자체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주관적 행

복감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우울이 높아질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의 저하와 관련된 우울의 증가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Fukuda 등[22]은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 상태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주관적인 행복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Shin 등[19]은 도시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여 사회적 지지가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Ham[35]은 도시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 수준과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은 우울과 부(-)의 직접효과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과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가 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모든 노인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우울 수준과 그의 관련 요인들을 동시에 측정한 횡단연구(cross sectional study)로서 우울 수준에 관련된 제 변수들에 대한 관련성은 확인되었으나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표준화된 도구이지만,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존하여 측정, 수집되었기 때문에 응답 편향(response bias)이 개재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즉,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지지만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경우 우울 수준을 낮춰주는 경향성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향후 노인들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관적 행복감을 더욱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더욱 확대하여 실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택 노인들

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의 우울 수준은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5.28, p<0.01$). 이 같은 결과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노인들의 우울과 관련 있는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매개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지지 및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uture Population Estimation. Daejeon: Statistics Korea, 2020.
- [2] Kats S, "The science of quality of life," J Chron Dis, vol. 40, pp. 459-463, 1987.
- [3] Pearlman RA. Quality of life in chronic disease: perception of elderly patients. J Gerontol, vol. 43, pp. 25-30, 1988.
- [4] H. S. Kim,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1, pp. 159-172, 2002.
- [5] Irvine J, Basinski A, Baker B, "Depression and risk of sudden cardiac death afte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testing for the confounding effects of fatigue," Psychosom Med. vol. 61, pp. 729-737, 1999.
- [6] Saltzman C. "Mood disorders," Textbook of Geriatric Psychiatry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pp. 313-328, 2000.
- [7] Satz P, Dewey ME, "Depression, depressive symptoms and mortality in persons aged 65 over living in the communit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Int J Geriatr Psychiatry. vol. 16, pp. 622-630, 2001.
- [8]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pp. 34-43, 2000.
- [9] Steptoe A, Deaton A, Stone AA. "Subjective wellbeing, health, and aging," Lancet, vol. 385, no. 9968, pp. 640-648, 2015.
- [10] Niklasson J, Hornsten C, Conradsson M, et al. "Hihh morale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survival in the very old," Aging, vol. 44, no. 4, pp. 630-636, 2015.

- [11] Koopmans TA, Geliijnse JM, Zitman FG, et al. "Effects of happiness on all-cause mortality during 15 years of follow-up: the Arnhem Elderly Study," *J Happiness Stud*, vol. 11, no. 1, pp. 113-124, 2010.
- [12] Morimoto Kanehisa. "Life style and Health," *Ekakushyoin Co.* pp. 166-168, 1991.
- [13] Fukuda H, Kida K, Kimura Y, Nishizawa Y, et 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residents of a provincial city 65 years old or older,"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9, no. 2, pp. 97-105, 2002.
- [14] LaRocco JM, House Js, French JRP.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 Health Soc Behav*, vol. 45, pp. 193-205, 1980.
DOI: <https://doi.org/10.2307/2136616>
- [15] Williams AW, Ware JE, Donald CA. "A model of mental health,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pplicable to general populations," *J Health Soc Behav*, vol. 22, pp. 324-336, 1981.
- [16] Bowling A et al.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ver a two and a half year period among very elderly people living in London," *Soc Sci Med*, vol. 36, pp. 641-655, 1993.
DOI: [http://dx.doi.org/10.1016/0277-9536\(93\)90061-8](http://dx.doi.org/10.1016/0277-9536(93)90061-8)
- [17] Y. A. Lim.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the elderlies at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11, pp. 335-34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1.335>
- [18] H. S. Lim, Y. C. Cho.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social and family support among the elderly people in urban area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4, pp. 1721-1731,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4.1721>
- [19] E. S. Shin, I. S. Kwon, Y. C. Cho.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hysical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 in the Community Elderl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1 pp. 4995-5004,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1.4995>
- [20] Larson R.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vol. 33, pp. 179-184, 1978.
- [21] Yamashita K, Kobayashi S, Tsunematsu T. "Depressed Mood and Subjective Sensation Well-being in the Elderly Living Alone on Oki Island in Shimane Prefecture," *Japanese Journal of Geriatrics Society*, vol. 29, pp. 179-184, 1992.
- [22] Fukuda K, Kida K, Kimura Y, Nishizawa Y, et 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residents of a provincial city 65 years old or older,"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9, no.2 pp. 97-105, 2002.
- [23] K. H. Cho, Y. J. Jeong, Y. C. Cho. "Factors Related to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Elderly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Rural Medicine*, vol. 28, no. 2, pp. 71-85, 2003.
- [24] S. K. Chung.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20, no. 9, pp. 91-98, 2022.
DOI: <https://doi.org/10.22678/JIC.2022.20.9.091>
- [25]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I.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science,"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2, no. 2, pp.175-191, 2007.
<https://link.springer.com/content/pdf/10.3758/BF03193146.pdf>
- [26] Lawton MP.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 Gerontol*, vol. 30, pp. 85-89, 1975.
- [27] Sherbourne D, Stewart AL.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 Sci Med*, vol. 32, no. 6, pp. 705-714, 1991.
DOI: [https://doi.org/10.1016/0277-9536\(91\)90150-B](https://doi.org/10.1016/0277-9536(91)90150-B)
- [28] M. K. Lim, M. H. Kim, Y. J. Shin, et al.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status in a low income neighborhood of Seoul, Korea.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vol. 36, no. 1, pp. 54-62, 2003.
- [29] Weissman MM, Locke BZ. "Comparison of a self-report symptom rating scale(CES-D) with standardized depression rating scales in psychiatric populations," *Am J Epidemiol*, vol. 102, pp. 430-431, 1975.
- [30] Radloff, L. "The CES-D scale :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 Measure*, vol. 1, pp. 385-401, 1997.
- [31] J. C. Lee, J. A. Park, N. K. Bae, Y. C. Cho.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Elderly in Urban and Rural Areas,"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vol. 33, no. 2, pp. 204-220, 2008.
DOI: <https://doi.org/10.5393/JAMCH.2008.33.2.204>
- [32]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3] J. T. Baek, H. Y. Lee, Y. C. Cho. "Relating Factors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Elderlies in Urban Area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506-51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506>
- [34] S. P. Ham, B. H. Kim. (2021).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Urban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4, pp. 367-377.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4.367>
- [35] S. P. Ha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hysical Fun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n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Living in Urban Area," *Graduated School of Nam-Seou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22.

김 진 우(Jin-Woo Kim)

[정회원]



- 2005년 2월 : 고려대학교 의용과 학대학원 (이학석사)
- 2014년 2월 : 을지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보건관리, 응급의료, 응급구조